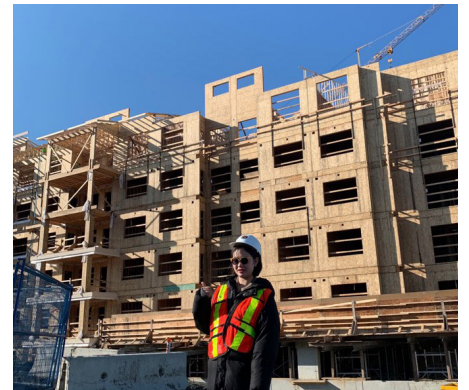




## 기행문

# 2020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 기행문

글 김정민 \_ 2019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



2020년 2월, 첫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제일 먼 여행지였던 내게 캐나다로 떠나는 건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주는 경험이었다. 처음으로 큰 캐리어에 짐을 싸고 환전도 했다. 비행기에 올라서도 신기한 것 투성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무료 영화를 보며 기내식도 두 끼나 먹었다. 촌스럽지만 처음에 떠날 땐 그랬다. 캐나다의 목조건축을 배우러 가는 것보다 캐나다에 간다는 것 자체에 더 설레었다.

10시간 가까운 비행이 끝나고 캐나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리치몬드 빙상 경기장'이었다. 운이 좋게도 우리 학교 전공 수업 중에 '목구조'수업이 있었다. 그때 배웠던 사례 건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건물이었다. 하이브리드 구조로 지어진 이 건물의 천장은 스케이트 날을 본 따 만들었다고 했다. 빙상경기장이라고 스케이트 날을 그대로 따서

건물에 적용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건물에 꽤 세련되게 적용했다고 생각했다. 직접 방문해서 보니 수업 때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많은 디테일로 구축되어 있는 천장을 볼 수 있었다. 또 이런 대규모 목조 건축물을 본 것이 처음이라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경기장을 둘러보고 점심 식사를 한 후 또 다른 목조 건축물을 둘러보고 스탠리 파크, 개스타운 등 밴쿠버 관광지까지 둘러본 후에 숙소로 돌아왔다. 그제서야 룸메이트와 인사도 했다.

룸메이트는 나와 동갑이라고 했다. 이다음 날부터 부지런한 그녀는 아침마다 잠이 많은 나를 깨워주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와서는 소장님들과 같이 저녁식사를 했다. 나이가 어리지만 싹싹하지 못해 쭈뼛대며 인사만 간신히 하던 내게 소장님들은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식사도 함께하자고 얘기해 주셨다. 소장님들은 이날 이후 일정이 끝난 저녁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건축계 실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정 소장님, 김 소장님, 서 소장님 모두 일정 내내 언니같이 엄마같이 나를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마지막에 호텔 앞에서, 공항에서 헤어질 때는 많이 아쉬웠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우리는 한국에서 꼭 또 만날 거니까!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목조 건축물 견학이 시작되었다. 목조 시공 시스템과 새로운 시공방법에 대해 교육 받고 실습을 하기도 했고, 공사 중인 현장에 직접 방문해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BCIT)'에서 교육받을 땐 목조 건축물 시공시 기밀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다.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실습을 할 땐 팀을 나눠서 각각 창에 멤브레인고 타이백 시공을 하고 연기를 주입해 완벽하게 기밀이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도 했다. 연기가 새는 곳이 실제로 시공이 되었을 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니 아찔했다.

좋은 교육 내용이었지만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기후 차이가 있어 시공에 사소한 차이가 있어 내가 알던 내용과 조금 달라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다. 얼른 우리나라도 목조건축이 더 발달해 사계절을 수용할 수 있는 시공 매뉴얼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장은 다양했다. 현장답사는 CLT, 경골목, 중목 공사 과정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장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도 너무 기초적인 걸 물어보는 건 아닐까 해 질문하는게 망설여질 때가 많았다.

그럴 땐 주변 소장님들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귀찮으실 만도 한데 예까지 들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연수 프로그램 자체도 좋고, 현지에 계신 목조

건축 종사자들에게도 많이 배웠지만, 함께 연수에 참여한 분들께 정말 많이 배웠다. 연수 기간 내내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았다.

연수 일정 중 캐나다 공휴일이 있어 하루의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다.

소장님들과 웨스트 밴쿠버 일부와 퍼블릭 마켓을 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전신주가 나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캐나다는 정말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목수님이 말해주시지 않았다면 출국하는 날까지 몰랐을거다.

웨스트 밴쿠버에 장 목수님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건축사무소 건물이 있다고 해 방문했다. 공휴일이라 아무도 없을 거라 예상했는데 한 분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목수님이 용기 내 벨을 눌러 우리는 그 사무소 소장님인 김 스미스씨를 만날 수 있었다. 스미스씨는 갑작스러운 우리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멋진 미소로 맞아 주시며 사무소를 소개해 주셨다.





사무소는 작은 규모였지만 나무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스미스 씨는 문을 두고 사무실 공간과 주거공간을 분리해 이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다. 주거 공간 곳곳에는 아드님의 그림이 걸려있었다.

스미스 씨가 작업 중이라 긴 얘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스미스 씨는 방문해 줘서 감사하다며 사무소 작업물이 실린 책까지 선물해 주셨다. 정말 멋진 분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분처럼 훌륭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축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경험을 마치고 방문한 도서관과 퍼블릭 마켓도 너무 좋았다. 캐나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도 좋았다. 혼자였다면 분명 나는 자유시간에도 호텔과 호텔 근처 상점만 돌아 다녔을게 뻔하다. 동행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멋진 자유시간을 보내고 다음날부터는 또 여러 현장과 목조 건축물을 둘러봤다. 자유시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를 방문한 것이다.

UBC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공립대학교로

캠퍼스가 정말 멋있다. 대부분의 건물이 목조로 지어졌고 디자인 또한 아름다웠다.

여러 건물을 낚고 둘러보다 보니 주어진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다. 공간마다 나무 골조와 빛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가 너무 멋졌다.

출국 전날엔 일찍 일정이 끝나 기념품도 사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도 했다. 통역을 맡아주셨던 크리스티나 씨에게 추천받아 유명 초콜릿 가게에도 갔다. 저녁에는 항구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멋진 저녁도 먹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일이 흘러가고 있었다. 처음으로 떠난 해외, 낯선 사람들과 10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섰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 되니 아쉽다는 마음이 더 컸다.

나에겐 알던 걸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아낌없는 조언까지 얻을 수 있던 10일이었다.

앞으로도 캐나다에서의 따뜻한 추억을 가지고 멋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①

12/15

캐나다 방부목 9년차 성능 검사  
경남 진주

②

12/16 ~ 12/2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연계교육  
경남 진주





③  
1/16  
수퍼-E® 워크샵 및 인증서 전달식  
AT센터

④  
2/5  
목조건축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과학기술회관 B1 소회의실





⑤

2/8

우드유니버시티 WDO  
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소프트웨어 실무과정 18기 종강

⑥

2/12 ~ 2/22

2020 ATCT 목조건축 기술연수  
캐나다 밴쿠버, 휘슬러

